

기획

독일통일 기폭제 된 '월요 항쟁' 시민정신이 인권 밑거름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15>

(2부) 선진 인권도시 배운다 - 독일 라이프치히

독일 북부 작센 주(州)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 라이프치히(Leipzig)시. 인구 50만으로 독일에서 10 번째로 큰 도시인 이곳은 '항쟁의 도시'이자, 독일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라이프치히시는 광주와 비슷한 인연이 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시작했던 '월요항쟁'을 밑거름 삼은 라이프치히시는 이제 인권·자유·평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은 만큼 라이프치히시의 정책은 대부분 시민들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권에서 비롯한 '월요항쟁' 라이프치히시의 '월요 항쟁'은 1989년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매주 월요일마다 시내 중심부의 성 니콜라이 교회 광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다. 처음 교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조용한 기도회는 매주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집회로 발전했고, 이는 곧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

프로젝트 대부분 시민 참여 원탁회의서 결정

전세계 도시간 네트워크 통해 인권신장 노력

항쟁 이전의 월요 기도회는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라이프치히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갈탄이 넓게 매장되어 있는 탓에 각종 공해로 시민들의 불만이 컸고, 시민들은 공해 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및 여권의 자유, 독일 통일을 요구했고 이러한 시위는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됐다. 공산 정권은 장갑차와 중무장한 경찰까지 동원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은 가라앉지 못했다.

1989년 9월25일 성 니콜라이 광장에서 대규모 월요 시위가 시작된 뒤 이어 10월9일 7만 명, 16일 12만 명, 23일 30만 명의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결국은 10월 호네커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가 이뤄졌다. 그리고 월요항쟁 시작 1년여 만인 이듬해 9월 독일은 통일을 맞게 된다.

◇시민들의 권리가 우선 라이프치히시는 '월요항쟁'을 통해 독일 통일을 이뤄낸 '시민 정신'과 '시민 권리'가 우선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을 재건하고 통일 독일을 이끈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라이프치히시는 모든 큰 프로젝트마다 시민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1989년 당시 '월요항쟁'을 이끈 당시의 시민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에 열리는 '월요항쟁'기념식과 각종 도시 축제 등에 시민들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라이프치히시는 인권도시 간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독일 내 인권도시로 손꼽히는 뉘른베르크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라이프치히시 가브리엘 골드퍼스 국제협력부 과장은 "인권과 정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정책은 1989년 당시의 시민정신을 계속 유지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가브리엘 골드퍼스

라이프치히시 국제협력부 과장



"내년 5·18 대표단 파견

광주와 인권·평화 교류"

라이프치히시 가브리엘 골드퍼스 국제협력부 과장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와 우호 협력을 통해 양 도시 간 세계 인권·민주화 공동 협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과장은 "인권과 자유를 추구하는 항쟁은 항상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80년대 당시 시민 정신이 살아있는 양 도시가 잘 협력하면 두 도시가 전 세계의 자유·평화·인권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광주 5·18 행사에 라이프치히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매년 광주의 5·18일 행사와 라이프치히의 10월 '월요항쟁' 행사에 양 도시 관계자와 학생 등이 참석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이뤄왔던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에 대해 "광주가 추구하는 인권도시도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의 시민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이끌어 인권도시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 또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10월 열린 독일 라이프치히시 '월요 항쟁' 기념식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1989년 집회를 재현하고 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Daewoo, Gwangju Station, and others, with details on price, location, and features.